장흥 진균류바이오센터, 발효 식품 산업화 '박차'

무화과 활용 'K-발효 콘셉트' 제품 개발…면세점 입점
지역 농산물·연구기관·민간 기업 협력 체계 성공 사례

장흥 진균류바이오센터가 지역 농산물과 발효 과학을 결합한 식품 산업화 성과를 본격화하고 있다.

28일 장흥군에 따르면 진균류바이오센터는 발효 전문기업 ㈜켄자임과 협력해 발효 기반 신규 식품 2종의 산업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 해당 제품이 국내 주요 면세점에 입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발효무화과플러스'와 '수분주머니'로, 모두 국내산 무화과를 발효 원료로 활용한 K-발효 콘셉트의 기능성 식품이다. 제품개발 과정에서 진균류바이오센터는 발효 원료의 성분분석, 규격화·표준화 공정을 담당하며 연구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했다.

발효무화과플러스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균주(S. cerevisiae SFT71)를 활용해 무화과를 발효한 제품으로, 발효 과정에서 당류는 감소하고 젖산·사과산 등 유기산과 생리활성 성분이 증가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원물 대비 풍미 균형과 소화·흡수 측면에서 개선된 특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수분주머니는 전해질 수분 보충 포뮬러에 발효 무화과 동결건조 분말을 결합한 제품이다. 전해질 조성에 발효 원료를 더해 단순 수분 보충을 넘어 자연 유래 풍미와 식이섬유·미네랄·유기산을 함께 섭취할 수 있도록 차별화했다. 이는 인공 감미료 중심의 기존 전해질 제품과 다른 방향의 접근으로 평가된다.

제품은 출시와 동시에 국내 면세점에 입점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선보이게 됐다. K-컬처와 K-푸드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발효 기반 건강식품을 '한국형 웰니스 식품'으로 소개하는 전략적 시도로 해석된다.

이번 성과는 지역 농산물(무화과), 발효 전문 연구기관, 민간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사례로, 진균류바이오센터는 기술 검증과 소재 생산 지원 등 산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시장 진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했다.

진균류바이오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발효 기술이 연구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장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과 발효·진균류 기술을 결합한 산업화 모델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발효무화과 관련 상품인 발효무화과플러스와 수분주머니

순천만 신년 흑두루미 탐조여행지 주목

개체수 8600마리까지 확인
시, 지정 탐방로 이용 당부

순천만이 흑두루미 개체수가 최대 8600마리까지 확인되면서 신년 탐조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순천시에 따르면 흑두루미는 매년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는 국제적 보호종으로, 순천만은 전 세계 흑두루미 절반이 월동하는 대표 서식지로 평가받고 있다.

맨발로 걷는 람사르길은 흑두루미 관찰이 가능한 탐조 명소로 겨울철 탐조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만습지는 전문 해설과 함께 관찰하는 '순천만 탐조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순천만습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예약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순천만 입구에서 쌍안경을 무료로 대여해 탐방객이 보다 편리하게 탐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시는 흑두루미의 안정적인 월동을 위해 정숙 탐조, 플래시 사용 자제, 지정 탐방로 이용 등 탐조 예절 준수를 당부했다.

순천만이 흑두루미 개체수가 최대 8600마리까지 확인되면서 신년 탐조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월동기 기상·먹이 여건과 휴식지 분산 등에 따라 개체수가 순천만을 중심으로 주변 권역으로 이동·분산하는 양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흑두루미 보호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흑두루미 9마리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이동 경로와 행동권을 분석하고, 서식지 관리와 탐방 동선 운영, 질병 대응 등 현장 관리 체계를 정교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흑두루미 개체수 증가는 순천만의 원시적 자연성이 살아 있고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며 "람사르길과 탐조프로그램을 통해 탐방객이 자연과 조용히 마주하며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하고, 위치추적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흑두루미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보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여수, 호남권 최초 '스마트도시 인증'

동판 제막식…"안전·편리·지속가능 미래 준비"

여수시는 호남권 최초로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스마트도시 인증'에 선정되면서 최근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동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제막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시의회 의장·시의원,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도시의 스마트 서비스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기술·기반시설 등 5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기관을 평가한다.

여수시는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실사를 통과해 2025년 우수 지자체로 선정, 인증서와 동판을 받았다. 이번 인증에서 여수시는 스마트관광 통합플랫폼인 '여수엔', 원거리 지역에서 실시간 수도 사용량 정보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스마트시티 기반 'CCTV통합관제센터', 스마트알리미 전자게시판, 시민 체감형 '빅데이터 포털',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등 여수시만의 특색있고 굵직한 시민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동판 제막식을 계기로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도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광양 어르신 디지털 복지 체감도 향상

스마트경로당 시범 운영

광양시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어르신 복지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스마트경로당 시범운영 사업'이 높은 참여도와 만족도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8일 광양시에 따르면 스마트경로당 시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4년 스마트빌리지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총 5억6150만원(국비 3억9300만원·시비 1억68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 복지 인프라를 구축했다.

시범운영은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경로당 2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노래교실과 실버로빅 등 양방향 실시간 비대면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중마노인복지관과 공공실버주택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각 경로당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결과, 총 70회 프로그램에 9116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회당 평균 참여 인원은 130명으로 기존 복지관 대면 프로그램 대비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특히 실버로빅 프로그램은 참여도가 높아 향후 확대 운영이 기대되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됐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응답자의 96%가 사업 운영에 대해 긍정적(만족 이상 75%, 보통 21%)이라고 답했으며, 79%는 이후에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 필요성이 확인됐고, 참여자 대부분이 70~80대 고령층으로 스마트경로당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광양=김귀진 기자

고흥,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준비 박차

내년 3월 통합지원체계 구축

고흥군은 최근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통합적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읍면 담당자, 협업부서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읍면에서 신청·조사를 통해 발굴된 의료·돌봄 필요 대상자 5명의 건강 상태, 생활환경, 돌봄 공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방문 건강관리, 일상생활, 주거환경 개선 등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업 방안도 함께 점검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 연계·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군은 초고령 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

군은 그동안 조례 제정, 민관 협력체계인 통합지원협의체 구축, 통합지원회의 운영, 전담인력 배치, 통합돌봄 수요조사 및 방향성 연구조사 등을 통해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통합돌봄 전담팀을 구성해 3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주민의 삶 전체를 살피는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다"며 "내년 본사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담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잰걸음'

주민설명회·특허공법 선정… 내년 착공 목표

담양군이 담양호 용마루길을 명품 산책길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담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호에 설치 예정인 미르교(가칭)는 총 경간 330m, 유효 폭 2.1m 규모의 보도현수교(출렁다리)로 조성된다.

군은 지난 6월 용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7월과 8월에는 지역 주민과 언론인, 군의회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실시했다. 이후 9월 전남도 경관심의를 거쳐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또 실시설계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전라남도 특허공법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12월 3일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제안서 공고를 통해 17일 공법선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특허공법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특허공법사는 보행교를 포함한 실시설계 구조 검토를 수행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 내년 1월 풍동실험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당 특허공법사는 향후 공사 추진 과정에서 보행교와 케이블 정착 설치까지 함께 수행할 예정으로, 장경간 보행현수교(출렁다리) 형식의 교량이 우수한 품질과 함께 내구성과 안전성을 갖춘 구조물로 제작·설치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전남을 대표하는 수변 힐링 명소 조성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누락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담양호의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우수한 1주탑 보도교 조성을 위해 2026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gwangnam.co.kr

곡성,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4억5000만원 지급

산림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

곡성군은 지역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해 225임가에 총 지급액 4억5000만원 규모의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이 지닌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직접지불유형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0.1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진흥법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육림업 직불금은 3ha 이상의 산림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등 실제 산림경영·관리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군은 올해 2월부터 임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11월까지 자격 요건 검증과 이행 점검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지급했다. 곡성=김유번 기자